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고분군 자료 공개와 활용*

남 익 희**

목 차

I. 머리말

II. 대구 달성고분군 연구사 및 조사

1. 재보고서 발간 이전
2. 재보고서 발간 이후

III. 달성고분군 재보고서의 활용과 연구

1. 51호분 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주성분분석
2. 37호분 1·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주성분분석
3. 50호분 1·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구형병 주성분분석

IV. 맺음말

* 이 글은 2022년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국문초록

본고는 대구 달성고분군에 대한 연구사를 재보고서 발간 전후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동안 대구 지역의 중심고분군에 해당하는 달성고분군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정해보았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20~30년대의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구, 유물에 대한 제대로 된 도면과 사진 등이 제시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다.

이후 재보고서에 제공된 유물의 실측 도면을 계측하여, 달성 37, 50, 51호분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 구형병 등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경주, 경산, 성주, 구미지역 등 주변지역 출토품과의 상이, 상사성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중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경주산과 지방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비슷한 외형을 보이더라도 대각 또는 배신의 크기(높이)가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주성분분석은 분석 대상의 계측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충족시켜준 것이 달성고분군 재보고서라 할 수 있고, 강점기 보고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토기 유물들이 도면과 사진으로 제공되어 고분군의 편년과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Ⅰ 주제어 Ⅰ

대구 달성고분군, 일제강점기, 주성분분석, 이단투창고배, 구형병

I. 머리말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달성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23년 일본인¹⁾에 의해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그 기록이 당시 발간된 보고서²⁾(이하 강점기 보고서)에 남아있었다. 이후 1960~7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달성고분군은 지표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사는 물론 대구 지역사에서도 자연히 ‘잊힌 기억’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처음 발굴조사가 행해지고 100여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들 고분 발굴에 대한 보고서가 국립대구박물관에 의해 발간(이하 재보고서)되었고, 이에 유구는 물론 유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도면과 사진이 제공됨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본고는 재보고서 발간 전, 후 시기로 나누어 달성고분군에 대한 연구사와 발굴조사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실제 재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달성 37호, 50호, 51호분에서 출토된 토기와 경주 및 주변 경산, 성주, 구미지역 출토 토기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출토 토기의 비교분석 과정에서는 재보고서에 공개된 유물 도면을 계측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경주지역)과 지방의 토기의 세부적인 상이, 상사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의 세부적 특징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대구 달성고분군 연구사 및 조사

1. 재보고서 발간 이전

2014년 국립대구박물관에 의해 ‘大邱 達城遺蹟 I’이 발간되기 전까지 달성토성, 달성고분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성과 고분군에 대한 조사 내용이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영남지방 내 여타 지역의 중심 고분군³⁾과 달리 달성고분군은 현재 지표

1) 달성고분군은 1923년 姜興周라는 인물이 택지 조성(현재의 대구 서문시장 부지)을 위한 토사 채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고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계기로 日本人[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노모리 켄(野守健), 사와 슌이치(澤俊一) 등]에 의해 34·37·50·51·55·59·62호 분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2) 朝鮮總督府, 1931, 『大正12年度 古蹟調査報告』.

3) 예를 들어 대구 주변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성주 성산동고분군, 의성 금성산고분군 등은 보존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연구자들의 시야에서도 사라진 채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에 달성고분군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대부분의 선학들은 강점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출토 유물, 특히 토기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과 고분의 편년 등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박광열은 대구, 경산, 칠곡지역 주요 고분 출토 토기를 검토하고,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동안식가야토기론’ 등을 재검토하였다(박광열 1992). 그 결과 대구, 경산, 칠곡지역 고분의 편년을 크게 6단계로 나누고,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토기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낙동강동안식가야토기’에서 신라토기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구, 경산, 칠곡지역 토기는 4세기대에는 공통양식을 띠다가, 5세기초 경주계 문물의 이입으로 신라양식을 띠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점기 보고서에 수록된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고배, 장경호, 대부완, 광구소호 등)를 중심으로 달성 34, 37, 50, 51, 55호분 등의 편년을 실시하였는데, 5세기 중엽~말엽(달성 51호분 1·2곽, 50호분 1곽), 6세기 전엽~6세기 중엽(달성 50호분 2곽, 55호분, 37호분 2곽), 6세기 중엽 이후(달성 34호분 1·2곽, 37호분 1곽)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함순섭은 먼저 일제 강점기 대구 달성고분군의 조사경과와 보고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조선총독부의 문서를 통해 달성과 달성고분군 주변의 당시 정황을 파악하였고, 당시 조사와 보고의 한계를 검토하였다(함순섭 1996). 이후 달성고분군의 조영기획에 따른 배치상 등을 고찰하여 달성고분군 내부에는 7개의 분포군이 존재함을 파악하였고, 봉분의 규모와 위세품의 질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 5개의 소집단이 모여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달성고분군의 조영시기는 낙동강이동지방의 고총고분 출토유물과 백제 영역에서 출토된 절대연대 자료(逆心葉形鍔帶金具)⁴⁾ 등을 근거로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엽까지로 판단하였고, 달성의 성벽축조기에 형성된 문화층에서 출토된 유물과 고분군 내 무덤의 배치상태 등을 근거로 상한을 조정하면 5세기 초엽까지 올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2년 논고(咸舜燮 2012)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도리이 유조(鳥居龍藏)의 경주 월성 및 대구 달성조사에 대해 정리하고, 그 의미를 재검토하기도 하였다.

김용성은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대구·경산지역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달성

4) 달성 37호분 2곽 출토 역심엽형과대금구를 무령왕릉(525년) 출토품의 앞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37호분 2곽을 6세기 초엽에 비정하였고, 51호분 2곽을 출토된 유개고배 등을 근거로 조사된 고분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분군의 편년을 실시하였다(김용성 1996). 고분 내에서 출토된 고배, 장경호, 직구호, 연질발, 단경호 등의 각 기종을 대각, 구경, 구연, 이(耳)의 부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종의 조합상 등을 토대로 편년을 실시하였는데, 51호분 1·2곽을 5세기 후반 전엽, 34호분 등을 5세기 후반 후엽에 비정하였다.

이희준은 영남지방 내 신라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구지역 달성고분군에 대한 편년을 진행하였다(이희준 1998, 2007). 그는 연구자들 사이에 절대연대와 분기는 차치하고라도 달성고분군의 상대연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출토 고배와 대부장경호의 형태, 문양 등을 기준으로 달성 51호분 1, 2곽을 자신의 IIa기(5세기 1/4분기), 37호분 2곽을 IIb기(5세기 2/4분기), 37호분 1곽, 50호분 1, 2곽, 55호분을 IIIa기(5세기 3/4분기), 34호분 1곽을 IIIb기(5세기 4/4분기)에 각각 비정하였다. 더불어 강점기 보고서를 검토하여 달성고분군의 묘곽 배치와 각 고분의 착장형 유물의 출토 정형성과 의미 등을 파악하기도 하였다(이희준 2000).

이상 선학들의 대구 달성고분군 편년안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 1⁵⁾과 같다.

표 1. 대구 달성고분군 편년안(재보고서 발간 이전)

	박광열(1992)		김용성(1996)		함순섭(1996)		이희준(1998, 2007)	
5C							1/4	51호분 1·2곽
	중엽 ~ 말엽	50호분 1곽 51호분 1·2곽			중엽	51호분 2곽	2/4	37호분 2곽
			후반 전엽	51호분 1·2곽			3/4	37호분 1곽 50호분 1·2곽 55호분
			후반 후엽	34호분 37호분 1·2곽 50호분, 55호분			4/4	34호분 1곽
6C	전엽 ~ 중엽	37호분 2곽 50호분 2곽 55호분			초엽	37호분 2곽		
	중엽 이후	34호분 1·2곽 37호분 1곽						

선학들의 달성고분군에 대한 편년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여러 고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을 ‘51호분 2곽’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며, 대부

5) 본고에 제시된 표와 그림은 2021년 국립대구박물관에 의해 발간된 ‘대구 달성유적 재보고서 VI권 (종합고찰)’에 수록된 표와 그림을 일부 수정·인용한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분 5세기 전·중반에서 6세기 중엽 전후의 시기에 제 고분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희준이 지적하였듯 51호분 2곽 이후의 편년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아마도 조사된 유물의 전모는 물론 정확한 유물의 실측 도면이 제시되지 않은 강점기 보고서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래 그림 1, 2와 같이 흑백으로 실린 사진 자료를 기준으로 토기의 형식을 분류하고, 일부 토기에서 보이는 문양 등을 근거로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였으니, 그 과정에서 각 토기의 정확한 규격, 소성 정도, 색조, 여타 토기에 대한 정보⁶⁾ 등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강점기 보고서에 제시된 달성 51호분 2곽 출토 유물 사진



그림 2. 강점기 보고서에 제시된 달성 50호분 1곽 출토 유물 사진

더불어 강점기 이후 달성고분군과 그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는 간행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대략 20여건 정도(표 4 참고)가 실시되었는데, 재보고서 발간 이전 시기까지 강점기에 조사된 봉토분을 제

6) 예를 들어 일단투창고배의 대각에 투창이 몇 개가 뚫려 있는지, 대각단의 단면은 어떤 형태인지, 이부호의 견부에 이(耳)가 몇 개가 부착되어 있는지 등은 각 유물에 대한 자세한 도면과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외하고 삼국시대 목곽묘 5기, 석곽(실)묘 23기, 옹관묘 1기 정도가 조사되었다. 특히 2008년에 조사된 ‘대구 비산동 405-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0)’은 함순섭이 설정한 달성고분군 III군(함순섭 1996)의 서쪽에 위치한 유적으로 삼국시대 석곽묘 12기가 조사되었는데, 대형 봉토분 주변에 중소형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여전히 이 일대의 지표 하에는 다수의 고분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2013년에 조사된 ‘대구 비산동 171-39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한국문화재보고재단 2015)’ 내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2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는데, 해당 석실묘의 위치를 지형도와 고분 분포도에 대입시켜본 결과 달성고분군 41호분의 매장주체부로 추정할 수 있었다(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재보고서 발간 전 이루어진 발굴조사의 경우 소규모 면적에서 이루어진 점 단위의 조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각의 조사지역이 달성고분군의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고서의 내용⁷⁾에 강점기에 조사된 고분에 대한 언급과 유구, 유물에 대한 활용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강점기에 조사된 고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도면, 사진 등이 제공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 재보고서 발간 이후

먼저 김세기는 대구지역의 지리학적, 고고학적 범위를 정의하고, 선사~삼국시대까지 대구 지역 내에 존재하였을 고대 정치체에 대해 논의하였다(김세기 2018). 그 과정에서 대구분지 중심에 위치한 달성토성 및 달성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과 위상 등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달성토성은 토성이나 점토다짐의 중간에 석축을 교차로 쌓아올린 토석혼축성이며, 삼국 통일 후 신라는 대구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 하였는데, 새 수도 궁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달성토성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 남익희(2020a)의 달성고분군 편년

	달성고분군 내 고총	달성고분군 내 발굴조사 유적
3C 中 전후		비산4동 200-82유적 4호 토광묘
4C 初 전후		비산4동 200-82유적 2호 토광묘 비산4동 202-1유적 3호 목곽묘
4C 後		비산동 405-1유적 9호 석곽 주구출토 유물

7) 특히 각 보고서의 말미에 있는 고찰 부분에 일제 강점기에 조사된 고분들에 대한 편년, 자료의 비교·검토 등이 전무하다.

		달성고분군 내 고총	달성고분군 내 발굴조사 유적
5C	初		비산동 405-1유적 11호 석곽 주구출토 유물
	前		.
	中	51호분	비산4동 202-1유적 4호 석곽묘
	後	37호분 41호분	비산4동 200-82유적 1호 석곽묘 비산동 405-1유적 9호, 12호 석곽묘
	末	50호분	비산동 405-1유적 5호, 10호 석곽묘 비산동 265-9유적 석곽묘
6C	初		비산동 405-1유적 1호, 7호, 11호 석곽묘
	前		비산동 405-1유적 4호, 8호 석곽묘
	中·後		1923년 달성고분군 경찰서 인계분 토기

다음으로 남익희는 달성고분군 재보고서와 일제 강점기 이후 이루어진 발굴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고분군의 편년과 축조 양상, 축조집단의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남익희 2020a).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후엽까지 달성고분군 내에서 조사된 여러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였고,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 목곽묘 계열의 고분이 달성고분군 I 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부 일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4세기대와 5세기 전엽을 전후한 시기까지 목곽묘 계열의 고분이 달성고분군 내 I 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부 일대와 III군의 서쪽 일대에 조영된 것으로 보이고, 5세기 중엽이 되면 37, 41, 50, 51호분 등이 속한 II군을 비롯하여, 고분군 내의 각 군에서 고총의 조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세기에 들어서면 고분군 내에서는 주로 중소형의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고분의 매장주체부로는 석실묘가 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달성고분군 재보고서에 제시된 37, 50, 51호분 출토 토기 도면을 적극 이용하였으며, ‘1923년 경찰서 인계분 자료’ 중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수 있는 단각고배 등을 확인하여 고분의 편년에 반영하였다.

또한 재보고서에 제시된 정확한 유물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37, 50, 51호분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 등을 동시기로 판단되는 경주, 성주, 구미지역 출토품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성분분석을 통해 중앙(경주지역)과 지방 토기의 세부적인 상이, 상사성을 확인하고, 달성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의 특징과 產地 등을 추정하였다(남익희 2020b). 특히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의 주성분분석 과정에는 토기의 계층 값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준 것이 달성고분군 재보고서라 할 수 있다.

단계	미상(수습유물)	2-2단계			
귀형태	고리형귀	갈고리형귀			
타날문	횡선문타날				
저부	바닥이 들린 밑각평저				
도질, 와질 소성					
	강흥주파괴고분36	서변164호 석곽	서변171호 석곽	서변165호 석곽	
단계	미상(수습유물)	3-1단계 (소재미상)			
귀형태	갈고형귀	갈고리형귀			
타날문	횡선문타날	횡선문타날			
저부	바닥이 들린 밑각평저	바닥을 깎은 평저			
연질 소성					
	강흥주파괴고분35	강흥주파괴고분38	달성 34호 ³⁵⁾		

그림 3. 김동진(2022)의 ‘달성 일대 고분군 양이부호 계열의 속성 변화상’

김동진은 5~6세기 낙동강 중상류역에 해당하는 대구, 경산, 성주, 군위, 의성지역에서 출토된 이부호(耳附壺)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달성고분군 출토 이부호를 분석하였다(김동진 2022). 특히 이부호의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구경부의 형태와 함께 소성상태를 선택하였는데, 도질소성(A류:회청색 내지 회흑색 색조), 와질소성(B류:회색 내지 회백색 색조), 연질소성(C류:적갈색 내지 등색 색조) 등으로 이부호를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보고서에 제공된 이부호의 컬러 사진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토기의 외면 색조를 기준으로 소성도를 판단하고(그림 3참고), 실측 도면 등을 이용해 구경부의 형태 등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달성 51호분과 함께 주변의 소형 석곽묘에서 이부호가 출토되는데, 주로 와질소성품이며, 다양한 계열의 이부호가 부장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의 달성 34, 50호분 단계에 이르면 구연이 내경하는 연질소성의 이부호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재보고서 발간 이후 달성고분군과 그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정밀분포조사 포함)는 간행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7건 정도(표 4 참고)가 실시되었는데, 삼국시대 분묘 유구의 경우 석곽묘 4기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이 중 2018년에 실시된 정밀분포조사(세종문화재연구원 2018)는 재보고서 발간 이후 달성고분군의 정비와 보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였다. 정밀분포조사 결과, 도시화로 공지(空地)가 없을 정도로 달성고분군 일대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근래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층(지하구조물이 없는)의 단독주택이 많아 그 아래에는 고분과 관련된 시설이 유존하고 있을 것⁸⁾으로 추정하였고, 더불어 달성고분군의 분포범위를 현재 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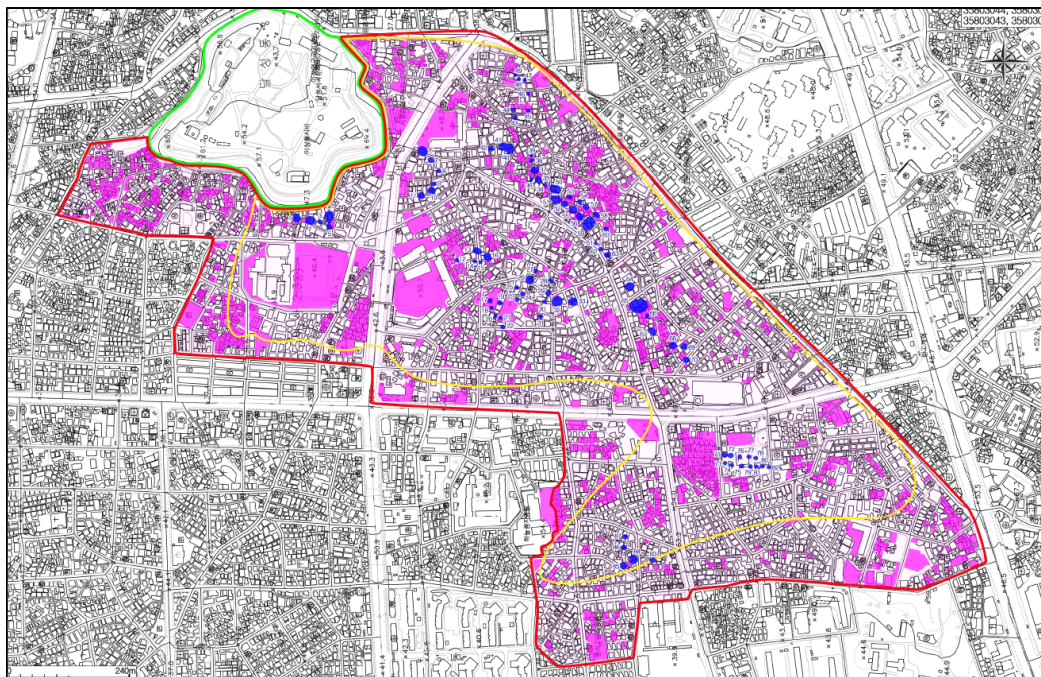


그림 4. 달성고분군 범위 확대안 및 공지, 단층주택 분포도(세종문화재연구원 2018년 보고서의 도면 5-2)

재보고서 발간 이후 달성고분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후 실질적인 보존과 조사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달성고분군 일원에서 진행된 소규모 발굴조사와 그 결과 보고서에 재보고서의 내용이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8) 크게 4~5지점을 추정하였는데, 달성고분군의 고분 분포도를 오늘날의 지형도와 결합하였을 때 17~23호분, 26호분, 37~60호분, 71~82호분 일대이다.

표 3. 대구 달성토성 및 고분군 관련 연구 논문

연번	제목	발표자	연도	출처	비고
1	大邱의 初期國家 形成過程-考古學的 資料를 中心으로-	윤용진	1974	동양문화연구	재 보 고 서 발 간 이 전
2	琴湖江下流域 古墳의 編年과 性格-陶質土器를 中心으로-	박광렬	1992	영남고고학 11	
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이성주	1993	영남고고학회 제2회 학술발표회	
4	三韓時代의 大邱	주보돈	1995	대구시사 1	
5	大邱 飛山洞37號墳 2石室 出土 冠	함순섭	1995	고대연구 4	
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김용성	1996	한국고고학보 35	
7	新羅國家形成期 大邱社會의 動向	주보돈	1996	한국고대사논총 8	
8	大邱 達城古墳群의 着裝形 遺物 出土 定型 -일제하 조사보고서의 재검토(3)-	이희준	2000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20주년 기념논총	
9	大邱 達城古墳群에 대한 小考-日帝強占期 調査 內容의 檢討-	함순섭	1996	석오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10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이희준	1998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이희준	2000	영남고고학 26	
12	신라고고학연구	이희준	2007	사회평론	
13	4世紀 新羅의 土城築造 背景 -達城과 林堂土城의 例를 통하여-	장용석	2008	영남고고학 46	재 보 고 서 발 간 이 후
14	日帝強占期 鳥居龍藏의 慶州月城 및 大邱達城 調査에 대하여	함순섭	2012	제2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15	대구지역 고대정치체의 형성기반과 달성토성의 위상-고고자료를 중심으로-	김세기	2018	대구사학 132	
16	한국고고학에서 탈식민지고고학과 ‘조선고적조사’	정인성	2020	1,500년 전의 기억, 대구 달성유적 (국립대구박물관-영 남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17	대구 달성유적 검토	조효식	2020		
18	대구 달성고분군 묘제의 특징과 성격	심현철	2020		
19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 검토	남익희	2020		
20	대구 달성고분군 자료로 본 신라 장신구의 단상	김재열	2020		
21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 마구의 특징과 의의	이현우	2020		
22	대구 달성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남익희	2020	야외고고학 37	
23	5~6세기 낙동강 중·상류유역 분묘 출토 이부호(耳附壺)의 연구	김동진	2022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 4. 대구 달성토성 및 고분군 관련 주요 발굴조사

연 번	유적(조사명)	조사기관	조사 연도	주요 내용	비고
1	경상북도 달성군 달서면 고분조사	조선총독부	1923	34, 37, 50, 51, 55, 59, 62호분 등 총 7기	재 보 고 서 발 간 이 전
2	대구 달성고분군 잔존유적- 대구시 비산4동 200-82번지 유적-	경북대학교박물관	1998	토광묘 3기, 석곽묘 2기	
3	달성고분군 발굴조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202-1번지 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목곽묘 2기, 석곽묘 3기	
4	대구 비산동 405-1유적 -대구 서부초등학교 개축공사부지 내 유적-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석곽묘 12기	
5	대구 비산동 403-3번지 근린생활 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근대 석렬 1기	
6	대구 비산동 171-39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석곽묘 2기, 석실묘 1기(41호분?)	
7	대구 비산동 171-75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석곽묘 3기, 옹관묘 1기	
8	대구 내당동 955-17·18번지 유적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수혈 1기	
9	대구 비산동 276-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근대 토광묘 2기	
10	대구 비산동 200-8번지 유적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5	석곽묘 1기	재 보 고 서 발 간 이 후
11	달성토성 정비·활용 시범사업 부지 내 유적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석축 1개소	
1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30-12번지 일원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암광유구	
1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6-9번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암광유구	
14	대구 비산동 265-9번지 근린생활 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한국문화재단	2017	석곽묘 1기	
15	대구 달성고분군 보호 학술조사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	
16	대구 비산동 270-8번지 유적	한국문화재단	2019	석곽묘 2기, 구상유구 1기 등	

Ⅲ. 달성고분군 재보고서의 활용과 연구

본 장에서는 달성고분군 재보고서를 활용한 연구 중 유물 실측 도면을 활용한 주성분분석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달성고분군 재보고서 중 종합고찰(大邱 達城 遺蹟VI)에 수록된 것을 재정리하였으며, 일부 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게는 시기별로 나누어 5세기 중엽의 달성 51호분 2곽, 후엽의 37호분 1, 2곽, 말엽의 50호분 1, 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50호분 1곽 및 경찰서 인계분에 포함된 구형병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1. 51호분 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주성분분석

달성 51호분 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4점과 동시기로 판단되는 경주 계림로 17호묘, 쪽샘 A1호 목곽묘, 성주 성산동 38호분, 화원 성산동 1호분, 달성 문산리 3호분 3곽, 경산 조영E I-1호 출토품 등 총 14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성분분석의 기본이 되는 변량은 이단투창고배의 각 부분 길이 측정 값(cm)이 되는데, 그림 5와 같이 총 8곳을 측정하였다. A는 각저경, B는 기고, C는 구경, D는 뚜껑받이턱경(배신최대경), E는 각상위경, F는 배신고, G는 대각고, H는 각중위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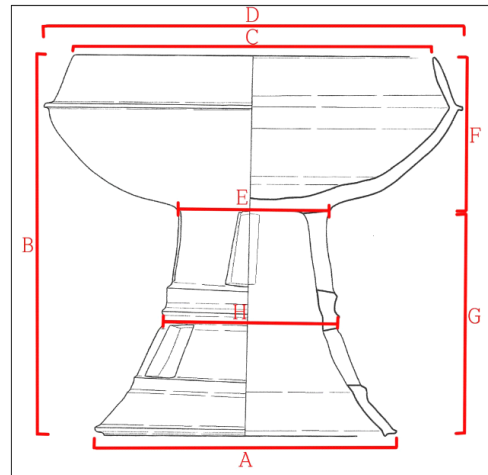


그림 5. 이단투창고배 계측 지점

달성 51-2① (재보고서 유물번호 2)	달성 51-2② (재보고서 유물번호 4)	달성51-2③ (재보고서 유물번호 44)	달성51-2④ (재보고서 유물번호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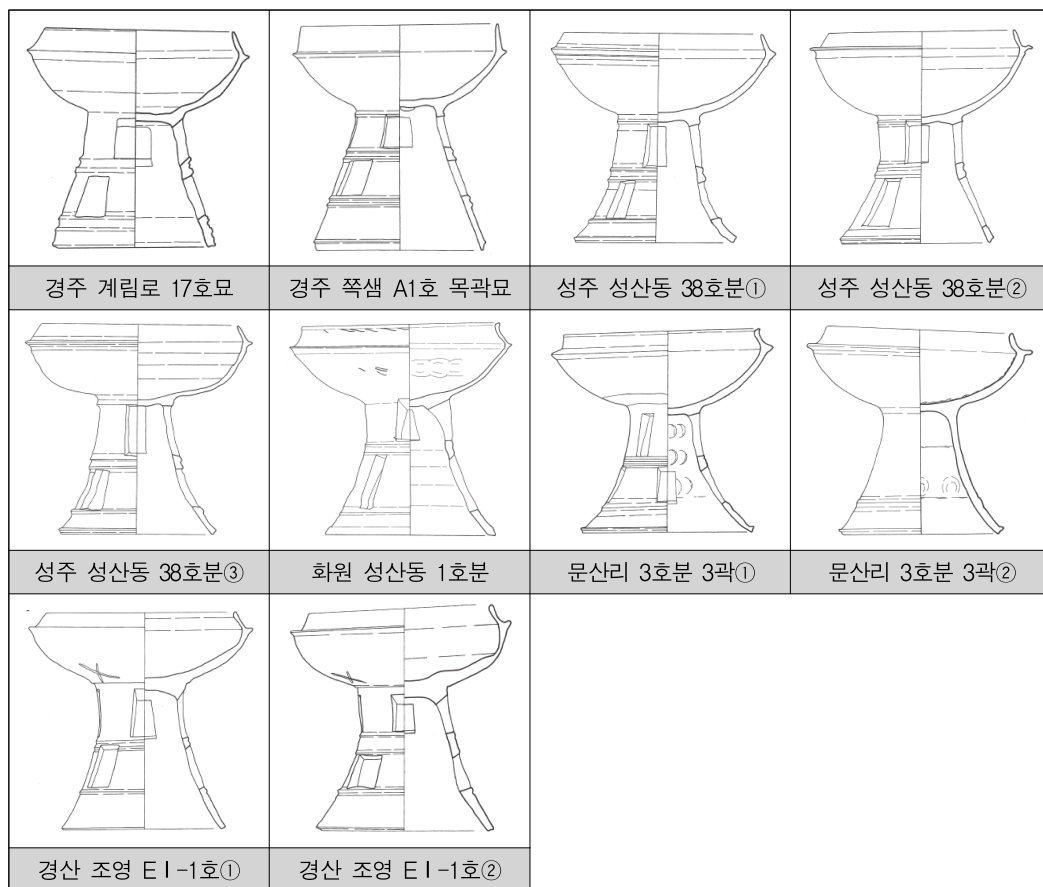


그림 6. 5세기 중엽 분석 대상 이단투창고배(축척부동)

표 5. 5C 중엽 이단투창고배 성분행렬^a

	성분	
	1	2
각저경(A)	.850	.443
기고(B)	.625	.766
구경(C)	.899	.346
뚜껑받이턱경(D)	.880	.412
각상위경(E)	.566	.711
배신고(F)	.794	.367
대각고(G)	.479	.824
각중위경(H)	.262	.92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6. 5C 중엽 이단투창고배 주성분 기여율

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1	3.945	49.306	49.306
2	3.252	40.650	89.95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이단투창고배의 8곳의 측정값을 대상으로 하였고, 위 표 5, 6과 같이 주성분 2의 누적 기여율이 89.957%에 이르는 분석 값을 얻었다. 누적 기여율이 89.957%라는 것은 8개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성분 1과 2의 두 가지 각도로만 고찰하더라도 분석 대상의 본질이 약 90%까지 설명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성분 1과 2에서 개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의 플러스 상관으로 확인될 때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5를 통해 그림 7의 세로축(y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1에는 구경과 뚜껑반이턱경, 각저경 등 주로 고배의 가로 너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가로축(x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2에는 각종 위경과 대각고 등 주로 대각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점도 상 세로축을 기준으로는 도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고배의 가로 너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고, 가로축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대각의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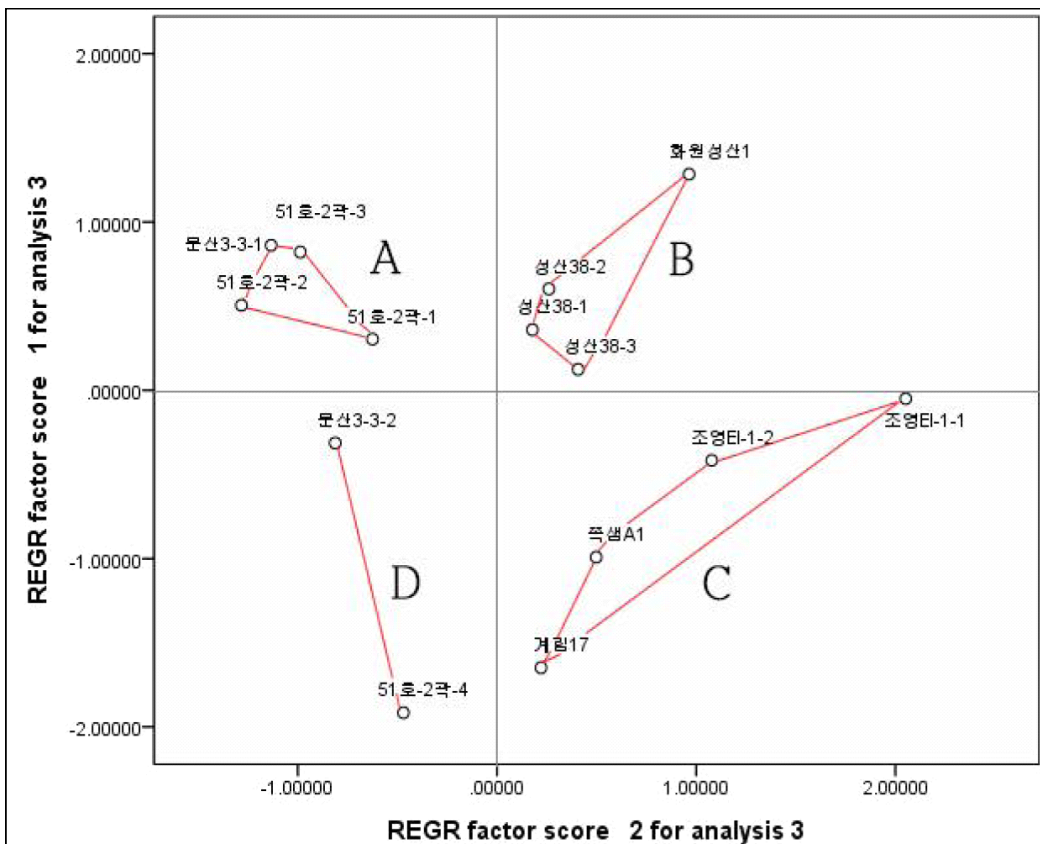


그림 7. 5세기 중엽 분석대상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결론적으로 그림 7의 x, y축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었을 때⁹⁾, A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가로 너비가 크고, 대각의 크기는 작은 것’, B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가로 너비가 크고, 대각의 크기도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가로 너비가 작고, 대각의 크기는 큰 것’, D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가로 너비가 작고, 대각의 크기도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분면에는 달성 51호분 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3점과 달성 문산리 3-3호 출토품 등 총 4점이 분포하는데, 달성 51호분 2곽 출토 3단각 계열의 이단투창고배 3점(달성 51-2 ①~③)은 문산리 3호분 3곽①과 유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성분 1을 기준으로 산점도 위쪽의 A, B분면에 분포한 달성 51호분 2곽 출토품 3점과 성주 성산동 38호분 출토품 3점은 상호 유사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강한 유사성이 인정된 양 지역의 토기가 이번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양상이 증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양 지역의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¹⁰⁾’이 거의 비슷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양 지역 사이에 직접적인 토기의 이동은 물론 공인과 같은 인적자원의 긴밀한 이동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과감하게는 5세기 중엽이라는 시간에 한정하여 공통의 ‘대구·성주양식’을 설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달성 문산리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문산리 3호분 3곽①)는 달성고분군과 유사한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로 제작되었지만, 세부적인 형태(구연부나 대각 중위의 돌대 처리 등)에서 볼 때 세부적인 제작지(공방)는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읍으로 상정되는 달성고분군 출토품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B분면에는 성주 성산동 38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 3점과 화원 성산동 1호분 출토품이 존재하는데, ‘고배의 가로 너비가 크고, 대각의 크기도 큰’ 이단투창고배들에 해당한다. 주성분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A분면 내에 위치한 달성 51호분 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3점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군집으로 볼 수 있고, 분면을 차치하고 점 사이의 상대적 거리만을 보아도 양 지역 이단투창고배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주 성산동 38호분 출토품과 화원 성산동 1호분 출토품이 함께 B분면에 위치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단투창고배들 중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배신이나 대각의 세부적인 형태 등에서 產地와 제작지(공방) 등은 각각 성주와 대구로 달리 존재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9) 도면의 x, y축에 있는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는데, 도면 왼쪽 상단을 A분면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각 B, C, D분면으로 한다.

10) 본고에서는 토기를 제작하는 공인의 숙련된 기술력과 행위, 토기를 구워내는 고온의 가마 등 토기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 요소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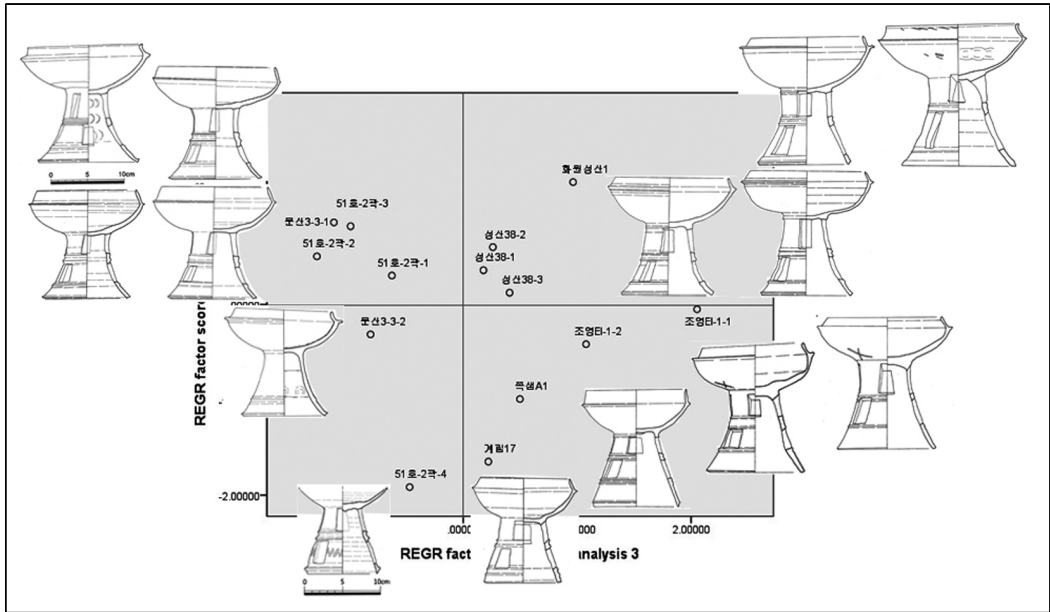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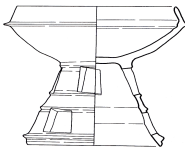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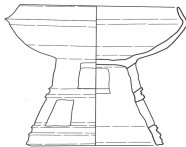




그림 8.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 비교

다음 C분면에는 경주 계림로 17호, 쪽샘 A1호 목곽묘 출토품과 경산 조영 EⅠ-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가 분포하는데, ‘가로 너비가 작고, 대각의 크기는 큰’ 이단투창고배에 속하고, 경주양식과 경산양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이 가능하다. 경주 계림로 17호 출토품은 황남대총 남분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신라(경주)양식을 띠고 있고, 경산 조영 EⅠ-1호 출토품은 경산지역에서 제작되었지만, 산점도 상으로 판단하자면 기본적인 모티브는 대구나 성주양식 보다는 경주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정치체 사이의 친연관계나 지리적 요소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양식	소양식	제작지		비고	
신라양식	경주양식	경주산			.
		황남대총 남분	계림로 17호묘		
		대구산			경주양식 모방제작
		달성 51호분 2곽(모방정도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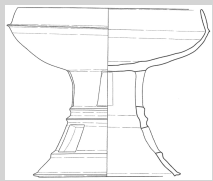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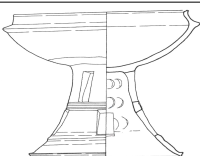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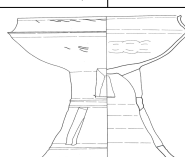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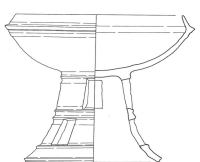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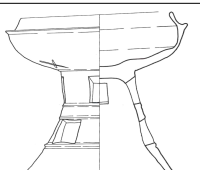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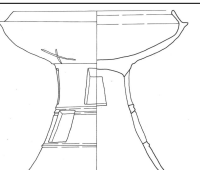
대양식	소양식	제작지		비고
신라양식	대구·성주양식	대구산		國 郡 토기
				
			달성 51호분 2곽	
				국 읍 토기 모방 가능성 ↑
			문산 3호 3곽(모방정도 上)	
			문산 3호 3곽(문산양식?)	
				
		회원 성산동 1호(모방정도 中)		
		성주산		달성 고분군 토기 모방제작? & 대구 중심정치체 (달성)와의 친연관계
				
성산동 38호분(모방정도 上)				
경산양식	경산산		경주양식 모방제작?	
				
		조영 T1-1호		

그림 9. 5세기 중엽 이단투창고배 양식 및 제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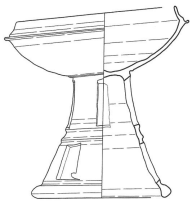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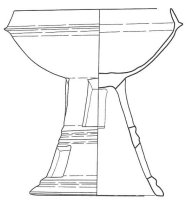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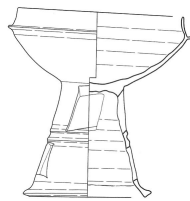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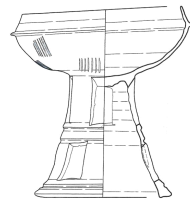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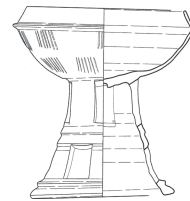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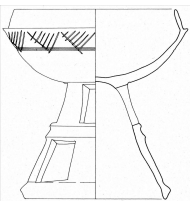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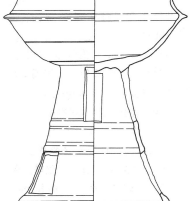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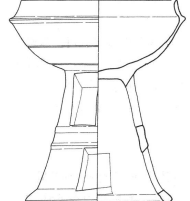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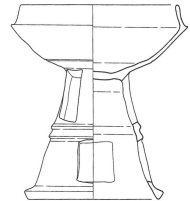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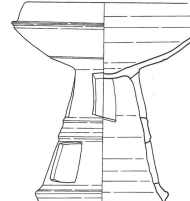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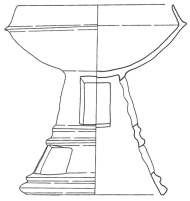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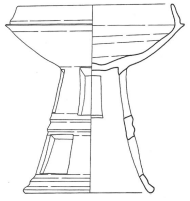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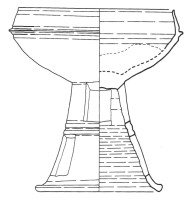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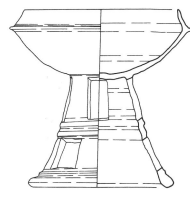

D분면에는 경주양식에 해당하는 달성 51호분 2곽 출토품과 무투창고배인 달성 문산리 3-3호 출토품이 분포하는데, ‘고배의 가로 너비가 작고, 대각의 크기도 작은 것’에 해당한다. 먼저 달성문산리 3-3호 출토품은 산점도 상의 상대적 거리는 A분면에 속한 제 토기와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어 A분면에 속한 제 토기와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산리 3-3호분 출토 무투창고배는 달성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제작지(공방)이 다르기에 ‘무투창’이라는 문산리고분군 특유의 지역색이 반영된 토기가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확연하게 신라(경주)양

식을 띠는 달성 51호분 2곽 출토품(달성51-2④)는 C분면 내의 경주지역 출토 이단투창고배와 산점도 상의 거리가 가깝고, 유사도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주지역 출토품과는 분포하고 있는 분면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주지역에서 제작되어 대구로 유입되었기 보다 대구 재지에서 모방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그림 9와 같다.

2. 37호분 1·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주성분분석

달성 37호분 1·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5점과 동시기로 판단되는 경주 황남대총 북분, 월성로 가-11-1호, 나-8호, 쪽샘 A9호 적석목곽묘 출토품, 성주 성산동 38호분, 59호분 출토품, 대구 불로동 91호분 3·4곽 출토품, 경산 조영 CI-1호, 임당 7C호 출토품, 구미 황상동 58호, 92호 석곽 출토품 등 총 19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달성 37-1 (재보고서 유물번호 1)	달성 37-2① (재보고서 유물번호 2)	달성 37-2② (재보고서 유물번호 5)	달성 37-2③ (재보고서 유물번호 6)	달성 37-2④ (재보고서 유물번호 23)
				
경주 황남대총 북분	경주 월성로 가-11-1호	경주 월성로 나-8호	경주 쪽샘 A9호 적석목곽묘①	경주 쪽샘 A9호 적석목곽묘②
				
성주 성산동	성주 성산동	대구 불로동	대구 불로동	경산 조영

38호분	59호분	91호분 3곽	91호분 4곽	C I-1호①
경산조영 C I-1호②	경산 임당 7C호	구미 황상동 58호 석곽	구미 황상동 92호 석곽	

그림 10. 5세기 후엽 분석 대상 이단투창고배(축척부동)

앞의 달성 51호분과 마찬가지로 모두 8곳의 측정값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래 표 7, 8과 같이 주성분 2의 누적 기여율이 84.697%에 이르는 분석 값을 얻었다. 역시 8개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성분 1과 2의 두 가지 각도로만 고찰하더라도 분석 대상의 본질이 약 85%까지 설명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주성분 1과 2에서 개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의 플러스 상관으로 확인될 때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7. 5C 후엽 이단투창고배 성분행렬^a

	성분	
	1	2
각저경(A)	.863	.152
기고(B)	.951	.085
구경(C)	.757	.526
뚜껑받이턱경(D)	.804	.484
각상위경(E)	.836	.264
배신고(F)	-.004	.961
대각고(G)	.907	-.144
각중위경(H)	.910	.042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8. 5C 후엽 이단투창고배 주성분 기여율

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1	5.219	65.243	65.243
2	1.556	19.454	84.69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표 7을 통해 그림 11의 세로축(y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1에는 기고와 각중위경, 대각고, 각저경, 각상위경 등 배신고를 제외한 대부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의 플러스 상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단투창고배의 전체적인 크기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로축(x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2에는 배신고의 성분행렬 값만이 .800 이상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배신고와 관련된 요소만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산점도 상 세로축을 기준으로는 도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고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배열되어 있고, 가로축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배신고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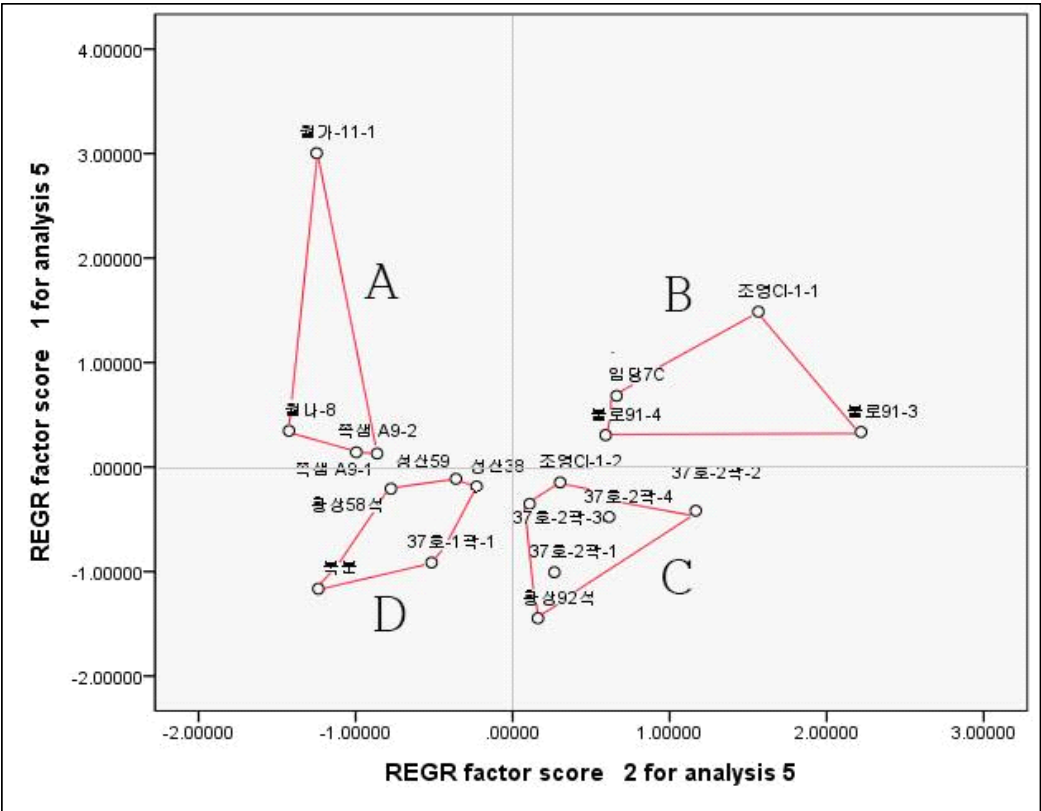


그림 11. 5세기 후엽 분석대상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결론적으로 그림 11의 x, y축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A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배신고는 작은 것’, B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배신고 역시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 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가 작고, 배신고는 큰 것’, D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가 작고, 배신고도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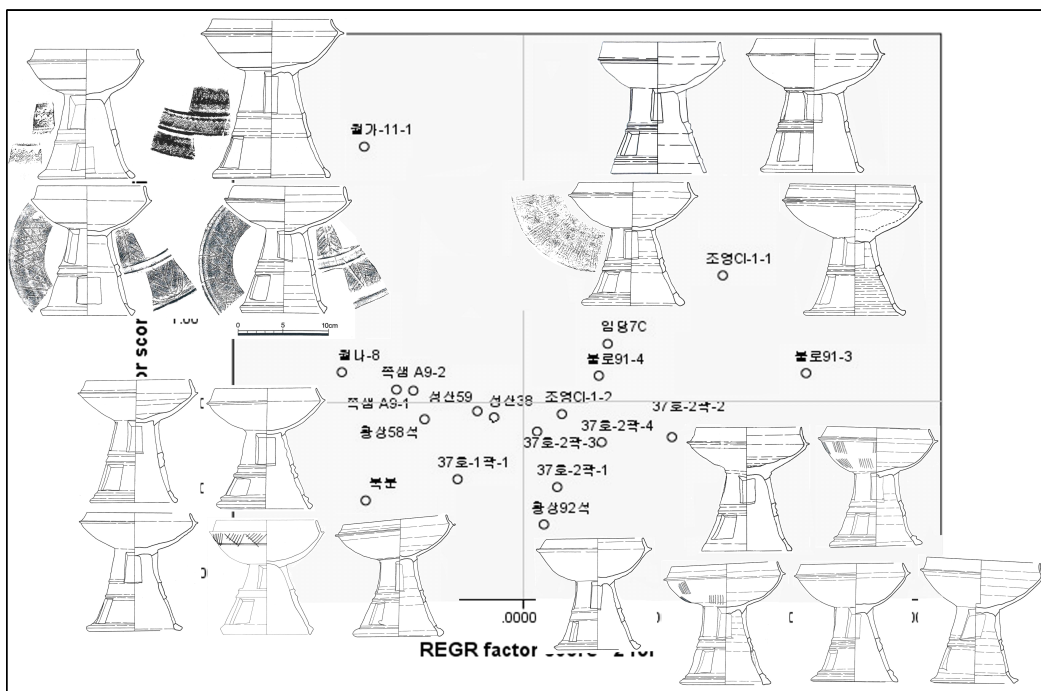


그림 12. 5세기 후엽 이단투창고배 비교

먼저 A분면에는 경주 월성로 가-11-1호분, 나-8호분, 쪽샘 A9호 적석목곽묘 출토품이 분포하는데, 전체적인 기고는 높지만, 배신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배들에 해당한다. 경주지역에서 생산된 이단투창고배들로 판단 할 수 있고, 대각이 늘씬하게 길다는 느낌을 주는 전형적인 이 시기 신라양식 고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주성분 1이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류의 세부적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고, 이에 배신고의 높이만을 반영하고 있는 주성분 2가 이 시기 이단투창고배의 분류에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 즉, 가로축(x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2(배신의 높이)가 이 시기 이단투창고배의 분류에 주요한 기준이 되고, 產地를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배의 배신이 ‘둥글다 또는 직선적이다’ 등의 육안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고배를 분류하고, 產地를 추정하기보다 이와 같은 통계학적 방법을 통한 분석이 나름의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B분면에는 대구 불로동 91호분 3·4곽 출토품, 경산 조영 CI-1호, 임당 7C호 출토품이 분포하고, 주로 경산지역 출토품이 확인된다. 삼국시대 경산지역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해안현과 관련된 불로동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배와 경산 조영 CI-1호, 임당

7C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가 비교적 유사도가 높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제작지(공방)는 다를 수 있지만 대구, 경주지역과는 다른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을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행정구역 상 대구지역에 속해있는 불로동고분군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 C분면에는 대구 달성 37호분 2곽 출토품 4점과 경산 조영 CI-1호, 구미 황상동 92호 석곽 출토품이 각 1점씩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인 크기는 작지만, 배신의 높이가 높은 이단투창고배들에 해당하고, 주로 대구지역産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미 황상동 92호 석곽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달성 37호분 2곽 출토품과 배신의 형태, 대각단의 처리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에서 대구지역에서 제작·생산되어 구미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마지막으로 D분면에는 대구 달성 37호분 1곽 이단투창고배를 비롯하여 경주 황남대총 북분, 성주 성산동 38호분, 59호분, 구미 황상동 58호 석곽 출토품이 분포한다. D분면에 속한 토기들은 A분면에 속한 경주지역産 이단투창고배들과 주성분 2를 기준으로 ‘배신의 높이가 비교적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경주양식을 충실히 모방해서 제작된 이단투창고배들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 시기의 이단투창고배들에서 특징적인 지역양식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경주양식을 충실히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성주 성산동 59호분, 구미 황상동 58호 석곽 출토품은 배신과 대각단의 처리 등에서 판단할 때 경주지역에서 제작·생산되어 각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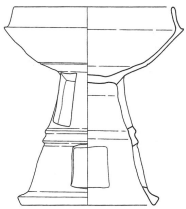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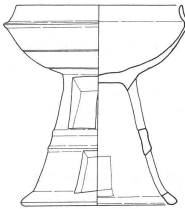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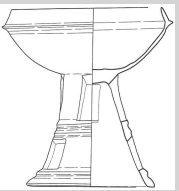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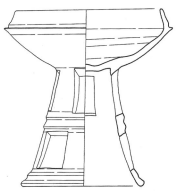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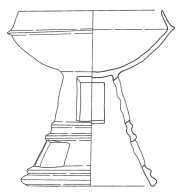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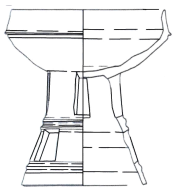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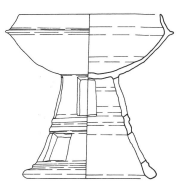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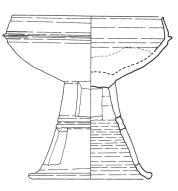
대양식	소양식	제작지			비고
신라양식	경주양식	경주산			•
			쪽샘 A9호	월성로 나-8호	
		지방산 (대구산 • 성주산 • 구미산 • 경산산)			경주 양식 모방 제작
			달성 37호분 1곽 (모방정도 上)	달성 37호분 2곽 (모방정도 中)	
					혹은 경주 산 유입
			성산동 59호분 (모방정도 上)	성산동 38호분 (모방정도 上)	
					경주 양식 모방 제작
			임당 7C호분 (모방정도 中)	불로동 91호 4곽 (모방정도 中)	
				불로동 91호 3곽 (모방정도 下)	

그림 13. 5세기 후엽 이단투창고배 양식 및 제작지

3. 50호분 1·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구형병 주성분분석

달성 50호분 1·2곽 출토 이단투창고배 10점과 동시기로 판단되는 경주 월성로 가-13-1호분, 계림로 19호, 27호묘 출토품, 성주 별티 1-1호 출토품, 대구 화원 성산동 동1호 출토품, 경산 임당 2호, G-44호 출토품 등 총 19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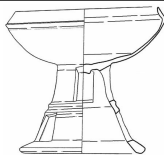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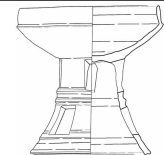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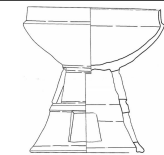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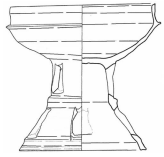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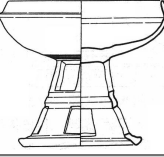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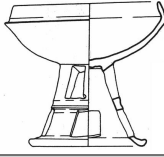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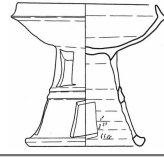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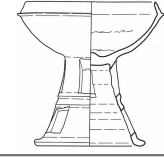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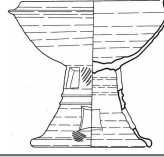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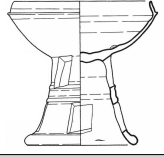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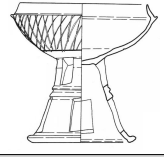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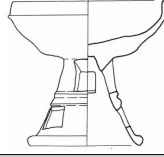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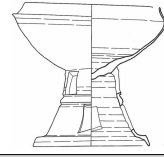
				
달성 50-1① (재보고서 유물번호 19)	달성 50-1② (재보고서 유물번호 22)	달성 50-1③ (재보고서 유물번호 24)	달성 50-1④ (재보고서 유물번호 44)	달성 50-1⑤ (재보고서 유물번호 49)
				
달성 50-1⑥ (재보고서 유물번호 61)	달성 50-1⑦ (재보고서 유물번호 66)	달성 50-2① (재보고서 유물번호 2)	달성 50-2② (재보고서 유물번호 5)	달성 50-2③ (재보고서 유물번호 10)
				
경주 월성로 가-13-1호①	경주 월성로 가-13-1호②	경주 계림로 19호분	경주 계림로 27호분	성주 별티 1-1호①
				
성주 별티 1-1호②	화원 성산동 동1호	경산 임당 2호	경산 임당 G-44호	

그림 14. 5세기 말엽 분석 대상 고배(축척부동)

표 9. 5C 말엽 이단투창고배 성분행렬^a

	성분	
	1	2
각저경(A)	.692	.651
기고(B)	.726	.637
구경(C)	.582	.786
뚜껑받이턱경(D)	.383	.864
각상위경(E)	.850	.462
배신고(F)	.285	.894
대각고(G)	.918	.271
각중위경(H)	.836	.39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10. 5C 말엽 이단투창고배 주성분 기여율

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1	3.836	47.947	47.947
2	3.438	42.978	90.925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앞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8곳의 측정값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 10과 같이 주성분 2의 누적 기여율이 90.925%에 이르는 분석 값을 얻었다. 역시 8개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성분 1과 2의 두 가지 각도로만 고찰하더라도 분석 대상의 본질이 약 91%까지 설명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역시 주성분 1과 2에서 개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의 플러스 상관으로 확인될 때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9를 통해 그림 15의 세로축(y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1에는 8개의 변량 중 각상위경과 대각고, 각중위경 등 주로 대각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주성분 2에는 뚜껑받이턱경과 배신고 등 주로 배신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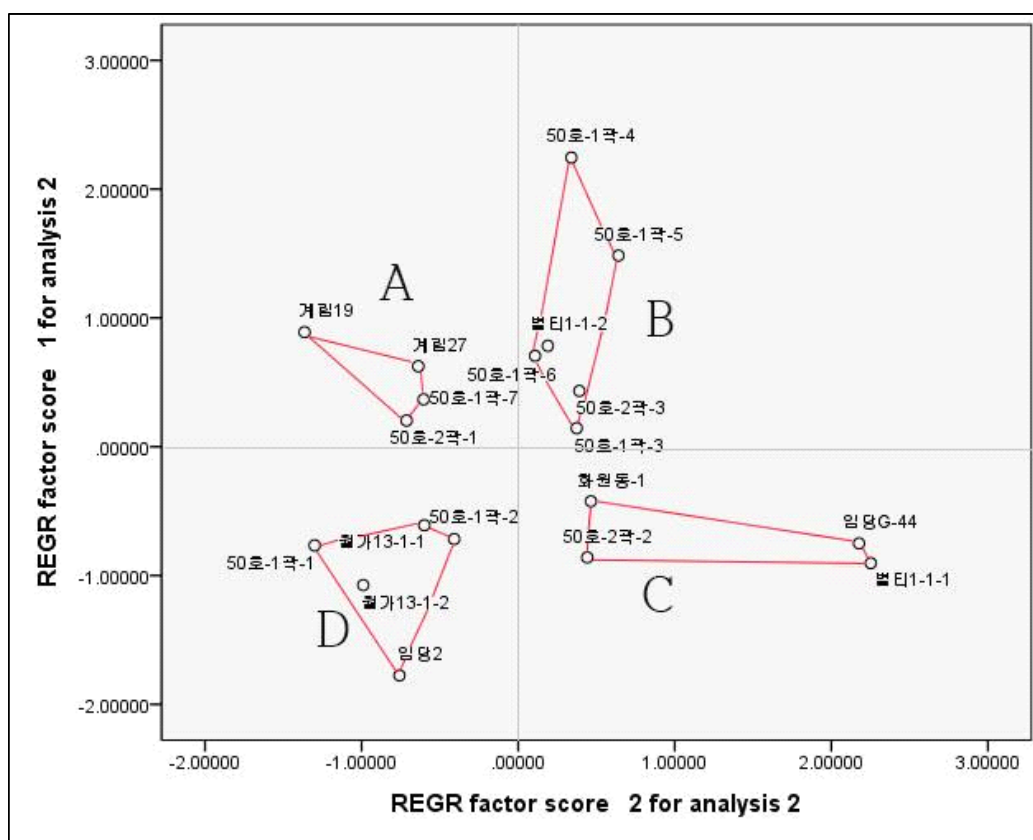


그림 15. 5세기 말엽 분석대상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즉, 산점도 상 세로축을 기준으로는 도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고배 대각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배열되어 있고, 가로축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고배 배신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림 15의 x, y축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A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대각이 크고, 배신은 작은 것’, B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대각이 크고, 배신 역시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대각이 작고, 배신은 큰 것’, D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대각은 작고, 배신도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 D분면에는 주성분 2를 기준으로 배신의 크기가 작은 고배가 분포하고 있는데, 경주 월성로 가-13-1호, 계림로 19호, 27호묘 출토품 등 경주지역 이단투창고배가 모두 포함되어있고, 이외 대구 달성 50호분 1곽①·②·⑦, 50호분 2곽①, 경산 임당 2호 출토품이 존재한다. 대각단의 처리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제작·생산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대구 달성 50호분 1곽①·②·⑦, 경산 임당 2호 등은 경주양식과 유사도가 높게 충실히 모방 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경주지역에서 제작되어 대구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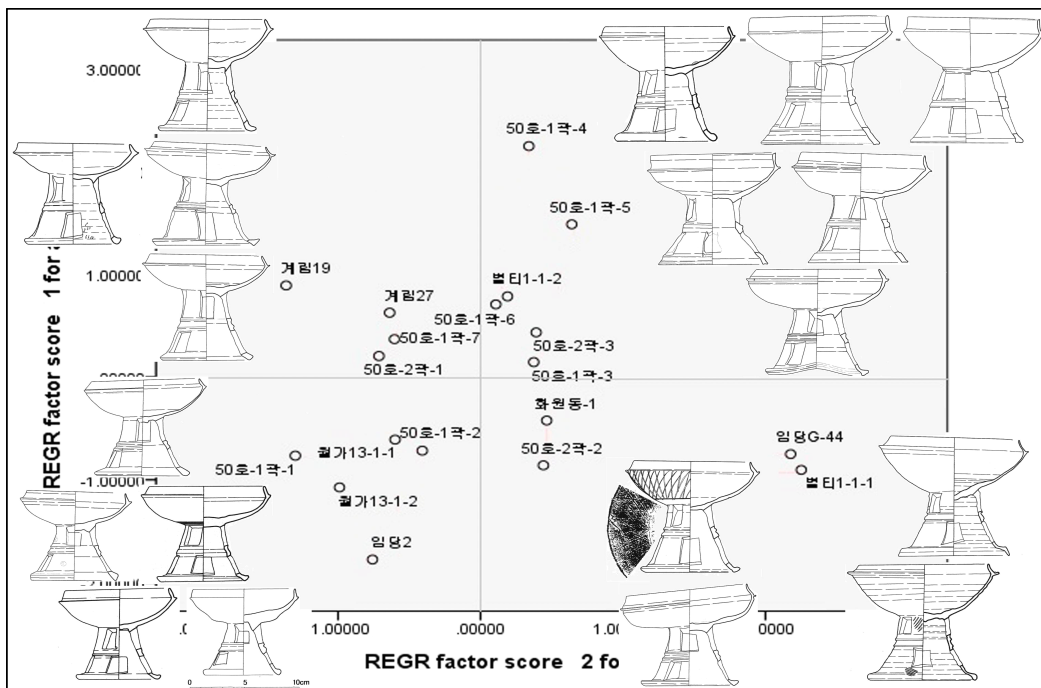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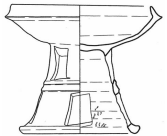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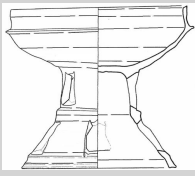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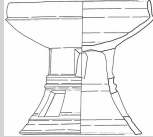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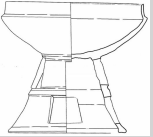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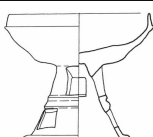


그림 16.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비교

다음 B분면에는 대구 달성 50호분 1곽③~⑥, 50호분 2곽③, 성주 별티 1-1호②가 분포하는데, 대구지역産 이단투창고배가 주를 이룬다. 대각과 배신 모두 큰 이단투창고배에 해

당하고, 대구지역에서 제작·생산하였다면 산점도 상의 거리 등으로 볼 때 A, D분면에 속한 것 보다는 경주양식에 대한 모방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분면에는 대구 달성 50호분 2곽②, 화원 성산동 동1호묘, 성주 별티 1-1호①, 경산 임당 G-44호 등이 분포한다. C분면 내 분포 양상을 크게 좌, 우로 나누어 왼쪽에는 대구 지역産, 오른쪽에는 경산지역産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주 별티 1-1호①은 경산지역에서 제작·생산되어 성주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그림 17과 같다.

대양식	소양식	제작지			비고	
신리양식	경주양식	경주산			·	
			월성로 가-13-1호	계림로 19호		
		대구산				경주양식 모방제작 혹은
			달성 50호분1곽 (모방정도 上)		달성 50호분2곽 (모방정도 上)	경주산 유입
						경주양식 모방제작
			달성 50호분1곽(모방정도 中)			
						경주양식 모방제작 혹은
			달성 50호분1곽(모방정도 下)			
		경산산				경주양식 모방제작 혹은
			임당 2호분(모방정도 上)			




대양식	소양식	제작지		비고
		성주산		유입
			별티 1-1호(모방정도 上)	
	지역양식 (경산양식)	경산산		•
			임당 G-44호	
		성주산 또는 경산산		경산양식 모방제작
			별티 1-1호	

그림 17.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양식 및 제작지

더불어 달성 50호분 1곽 출토 및 경찰서 인계분 구형병¹¹⁾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비교 대상은 동일 대구지역 내 두산동고분군 출토품을 비롯하여 경주, 경산, 상주, 성주, 포항, 예천지역 출토 구형병¹²⁾으로 하였다. 구형병은 구연 및 동체의 형태 등에 의해 주로 분류되고, 대략 구연이 단순한 것에서 반부가 생기는 것으로, 동체가 장동형에서 횡타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성고분군 출토품 2점은 구연이 단순하고 동체가 장동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교적 구형병의 출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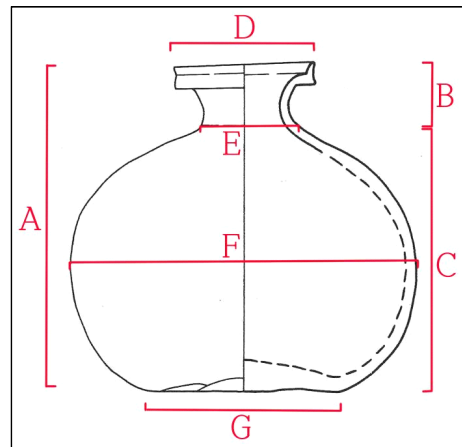


그림 18. 구형병 계측 지점

11) 구형병은 짧은 주둥이가 붙고 바닥이 말각평저 또는 환저인 병이다(윤상덕 2014).

12) 경주지역 및 지방 출토 구형병 40점을 주성분분석 하였고, 그 중 동일한 군으로 설정된 장동형 동체를 가진 구형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단투창고배와 마찬가지로 주성분분석의 기본이 되는 변량은 구형병의 각 부분 길이 측정 값(cm)이 되고, 그림 18과 같이 총 7곳을 측정하였다. A는 기고, B는 경부고, C는 동체고, D는 구연경, E는 경부하경, F는 동최대경, G는 저경이다. 그리고 달성 50호분 1곽 출토품 및 경찰서 인계분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구형병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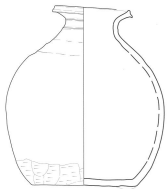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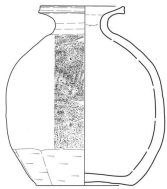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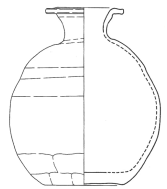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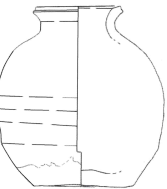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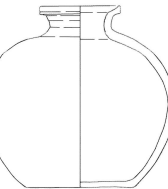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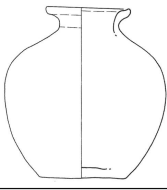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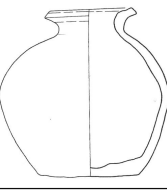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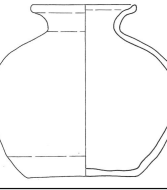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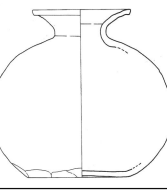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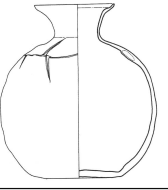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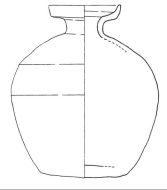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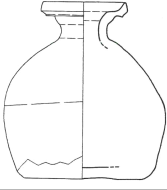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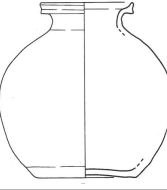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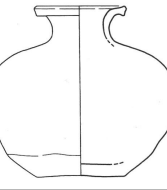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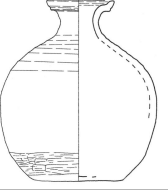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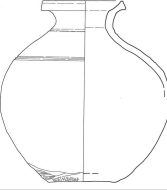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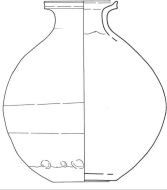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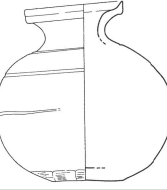
				
달성 50-1 (재보고서 유물번호 195)	달성 경찰서 인계분 (재보고서 유물번호 76)	대구 두산동 5호	경주 방내리(95)-12호	경주 방내리(98)-1호
				
경주 방내리(영)-1호	경주 방내리(영)-11호	경주 방내리(영)-22-2호	경주 경마C-I-1-15-2호	경주 경마C-I-1-21호
				
경산 임당A-I-108-2호	경산 임당D-I-62호	상주 오대동 다-11-2호	상주 거동동 6호	상주 차동골 7-4호
				
포항 오도리 2호	포항 오도리 3호	예천 덕율리 35호		

그림 19. 분석 대상 구형병(축척부동)

분석결과 표 12와 같이 주성분 2의 누적 기여율이 61.975%에 이르는 분석 값을 얻었고, 앞서 분석한 이단투창고배 보다는 누적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주성분 1과 2에서 개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의 플러스 상관으로 확인될 때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11. 구형병 성분행렬^a

	성분	
	1	2
기고(A)	.985	.065
경부고(B)	.556	-.163
동체고(C)	.871	.140
구연경(D)	.095	.877
경부하경(E)	-.109	.747
동최대경(F)	.530	.734
저경(G)	-.034	.284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12. 구형병 주성분 기여율

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1	2.342	33.464	33.464
2	1.996	28.511	61.975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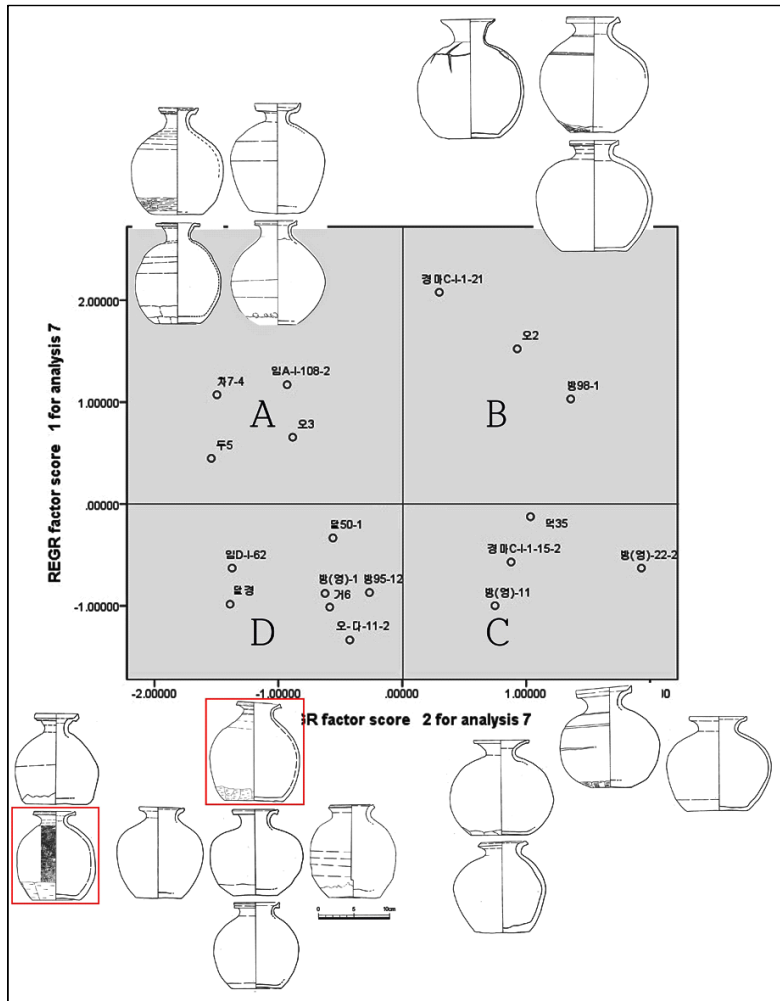


그림 20. 분석 대상 구형병 산점도 및 비교(□: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품)

표 11을 통해 그림 20의 세로축(y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1에는 7개의 변량 중 기고와 동체고 등 주로 구형병의 높이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주성분 2에는 구연경, 즉 구연의 너비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점도 상 세로축을 기준으로 도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구형병의 기고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배열되어 있고, 가로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구형병의 구연 너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림 20의 x, y축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A분면에 해당하는 구형병은 ‘구형병의 기고가 높고, 구연경 좁은 것’, B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구형병의 기고가 높고, 구연경 역시 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구형병의 기고가 낮지만 구연경은 넓은 것’, D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구형병의 기고가 낮고, 구연경 역시 좁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분면에는 대구 두산동 5호, 경산 임당A-I-108-2호, 성주 차동골 7-4호, 포항 오도리 3호 출토 구형병이 분포하는데, 분석 대상 구형병들 중 상대적으로 기고가 높고, 구연이 좁은 것에 해당하고, 경주 이외의 지방 출토품만이 존재한다.

B분면에는 경주 방내리(98) 1호, 경마장 예정부지 C-I-1-21호, 포항 오도리 2호 출토 구형병이 분포하는데, 기고가 높고, 구연도 비교적 넓은 구형병에 해당한다. 경주지역과 그 주변의 포항지역 출토품만이 B분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C분면에는 경주 방내리(영) 11호, 22-2호, 경마장 예정부지 C-I-1-15-2호, 예천 덕울리 35호 출토품이 분포하는데, 분석 대상 구형병들 중 기고는 낮고, 구연은 넓은 것에 해당한다. 주로 경주지역 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B분면의 양상과 비슷하고, B분면 내 구형병과 마찬가지로 동체가 상대적으로 약간 횡타원형을 띠고 있다.

D분면에는 대구 달성 50호분 1곽 및 경찰서 인계분 구형병을 비롯하여 경주 방내리(95) 12호, 방내리(영) 1호, 경산 임당D-I-62호, 상주 오대동 다-11-2호, 거동동 6호 출토 구형병이 분포한다. 기고가 낮고, 구연 역시 좁은 것에 해당하며, A분면에 분포한 구형병들처럼 동체가 비교적 장동형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 구형병 2점의 경우 산점도 상의 상호 거리로 보았을 때 경산 임당D-I-62호, 경주 방내리(영) 1호 출토품과 가장 유사도가 높다. 아마도 대구지역에서 경주지역의 구형병 등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주나 주변 경산지역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좌우로 나누었을 때 왼쪽의 A, D분면에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품을 비롯하여 주로 지방에서 출토된 구형병이 분포하고, 오른쪽의 B C분면에는 주로 경주지역 출토

구형병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분석 대상 구형병들이 큰 시간 폭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경주와 지방 출토 구형병을 구분하는 데는 주성분 2에 해당하는 구연의 너비가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먼저 대구 달성고분군에 대한 연구사를 재보고서 발간 전후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동안 대구지역의 중심고분군에 해당하는 달성고분군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정해보았다. 그 배경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달성고분군의 자취가 사라져버린 것도 있겠지만, 1920~30년대의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구, 유물에 대한 제대로 된 도면과 사진 등이 제시된 보고서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재보고서에 제공된 유물의 실측 도면을 계측하여, 달성 37, 50, 51호분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 구형병 등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경주, 경산, 성주, 구미지역 등 주변지역 출토품과의 상이, 상사성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중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경주산과 지방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비슷한 외형을 보이더라도 대각 또는 배신의 크기(높이)가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형병은 구연의 너비가 구분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주성분분석은 분석 대상의 계측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충족시켜준 것이 달성고분군 재보고서라 할 수 있고, 강점기 보고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토기 유물들이 도면과 사진으로 제공되어 고분군의 편년과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달성고분군 재보고서는 단순한 개인의 연구 성과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지역사, 더 넓게는 신라사를 복원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차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진, 2022, 『5~6세기 낙동강 중상류유역 분묘 출토 이부호(耳附壺)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金龍星, 199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 김세기, 2018, 「대구지역 고대정치체의 형성기반과 달성토성의 위상-고고자료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32.
- 남익희, 2020, 「대구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 검토」, 『1,500년 전의 기억, 대구 달성유적』 국립대구박물관-영남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 남익희, 2020, 「대구 달성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야외고고학』 37.
- 朴光烈, 1992, 「琴湖江下流域 古墳의 編年과 性格-陶質土器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11.
- 李盛周, 199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
-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 咸舜燮, 1996, 「大邱 達城古墳群에 대한 小考-日帝強占期 調査內容의 檢討-」,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張容碩, 2008, 「4世紀 新羅의 土城築造 背景 -達城과 林堂土城의 例를 통하여-」, 『嶺南考古學』 46.

【Abstract】

The Achievement and Application of the Initiative to Enhance Public
Access to the Excavation Data of the Dalseong Tombs(Dalsǒng Tombs)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Nam Ikhee*

This study summarizes the research history of the Dalseong Tombs(Dalsǒng Tombs) in Daegu – of both before and after and publication of the new report of the tombs that had previously been excava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and explores the reasons why research related to Dalseong Tombs(Dalsǒng Tombs) had not been actively conducted.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as identified as the absence of any report presenting proper drawings and photos of the archaeological and artifacts that were identified during excavations that had taken place in the 1920s and 30s.

In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the drawings of the artifacts provided in the new report were measured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ounted cups and globular and spherical bottles excavated from Dalseong Tombs(Dalsǒng Tombs) No. 37, 50, and 51. In addition,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ere established for the artifacts from the Dalseong Tombs(Dalsǒng Tombs) and those of the surrounding areas, such as Gyeongju(Gyǒngju), Gyeongsan(Gyǒngsan), Seongju(Sǒngju), and Gumi.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begins with the measurement of the target of analysis, and so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ation of the new report fulfilled this need. In addition, many earthenware artifacts that had not been disclosed were introduced with drawings and photos, allowing research on the chronology of tombs and of individual types and forms to take place.

Key words : Dalseong Tombs(Dalsǒng Tombs) in Daegu, Japanese occupation peri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ounted cup, globular bottle

* Excavation Manager,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